

## 아버지와 어머니가 본 자녀의 생활능력 비교

나 중 혜 (한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아동복지학 전공 조교수)

본 연구는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유능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아동에게 필요한 생활 능력을 증진시키는 방법을 고안한다는 궁극적인 목적을 갖고 이를 위한 기초 조사로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자녀의 생활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또한 서로 자녀의 생활 능력에 대한 평가에서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 자녀의 연령에 따라 부모가 생각하는 자녀의 생활능력이 달라지는지 등을 조사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어린이집 영아반,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부모가 아이와 동거하고 있고 첫아이의 연령이 만 1세에서 6세 사이에 있는 중산층 가정 170 가정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그 가정의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각각 설문지를 보내 이에 응답한 어머니와 아버지 총 298명을 본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인식하고 있는 자녀의 생활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병림(1987)이 제작한 아동의 생활능력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이 척도는 책임감, 지적 능력, 사회·인성, 미술능력, 신체운동능력, 건강 등 6개의 하위범주에 43개의 포괄적인 문항들로 구성 되어 있다. 각 문항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생각하는 자녀의 능력을 5점 리커트 척도로 답하게 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생각하고 있는 자녀의 생활 능력을 각각 알아본 결과, 전반적으로 자녀의 생활능력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평가는 거의 비슷하였다. 그러나 2세 미만 영아를 가진 어머니들이 아버지들 보다 영아의 지적 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고 6세 유아를 둔 아버지들이 그들의 어머니들 보다 자녀의 사회, 인성적인 능력을 더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각 능력 분야마다 연령별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유일하게 예술적 능력 면에서 연령별 차이가 나타났는데 아버지들의 생각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들은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예술적 능력이 적어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보였다. 한편, 자녀들의 성별에 따라 부모가 생각하는 자녀의 능력은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딸을 둔 어머니들의 경우 자녀의 사회적 능력이 아들을 둔 어머니들보다 더 높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미술 능력은 더 떨어진다고 보는 결과가 나타났다. 아버지의 경우에는 딸을 둔 아버지들이 아들을 둔 아버지들보다 자녀의 신체적 능력이 더 높다고 보는 결과가 나타났다.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딸을 둔 부모들이 아들을 둔 부모들보다 자녀의 건강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결과도 보였다. 자녀의 생활능력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의견이 거의 대부분 일치한다는 결과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자녀의 성에 따라 자녀의 능력에 대한 부모의 지각에 차이가 있다는 결과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 성에 따른 부모의 편견이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써 주목하여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